

영암대불산단,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전진기지 되나



영암군에 위치한 대불국가산단이 해상풍력발전 핵심 기자재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22일 영암군에 전남도가 2029년까지 총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8.2GW 규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불산단이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을

신안해상풍력발전 조성 관련 제조기술 접목 용이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어려운 시기 '마중물' 희망

자랑하는 대불국가산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핵심 기자재인 파운데이션 자켓, 블레이드 등의 제조에 기존 해양 철강 제조기술의 접목이 매우 용이한 상황이다. 선박 블럭 제조업체들은 해상풍력단지 기자재 생산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불산단은 거대한 기자재를 운반하는 트랜스포터와 넓은 도로 교통망 등 접근성 측면에서도 최고의 입

지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기존 대형 선박 블럭 제조업체들이 중소형 친환경선박과 알루미늄 소형선박 제조업종으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배후단지로서 필수 기자재·부품 생산 분야로의 전환은 영암군 기반산업의 확장과 함께 침체된 대불국가산단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산단 내 기업들도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준비를 위해 협의체 구

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민·관 협업과 생산 준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영암군은 장기간 조선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불국가산단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활력은 물론 영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산업과 수소연료 에너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의 R&D 연구 개발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암군은 해상풍력발전 조성 가시화에 따라 풍력발전 기자재 및 생산 부품 생산 설비를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군수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불국가산단이 해상풍력발전 핵심 기자재 생산 기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인 영암형 그린뉴딜 사업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신규 모집

목포시는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달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20개소를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20개소의 가격·위생·청결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요식업, 숙박업, 이

미용 등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표에 의해 가격·위생·청결·친절도 등을 현장 실사하고 적격여부 등을 따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점 항목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목포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정서 및 인증 표찰 교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식품업계 선두주자 신세계푸드와 손잡다

“지역특산물 상품화·외식메뉴 개발 위한 업무협약”



신안군과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는 지난 21일 군청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민중식 신세계푸드 올반 담당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외식 메뉴개발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세계푸드는 종합식품연구소 올반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신안군의 우수한 특산물 땅콩, 마늘, 대파, 양파 등을 상품화와 포장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스토리텔링 등 포괄적인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안군은 신세계푸드 측에 친환경 유기농인증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신안군 우수 농특산물을 공급하고 판매·유통 네트워크 구축, 판매 농산물 품질관리 등 기업과 신뢰형성을 위한 협력에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주)신세계푸드는 식품유통, 식품제조, 외식, 위탁급식, 베이커리 등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한식브랜드 '올반', '보노보노', '노브랜드 버거' 등 외식브랜드 운영 중인 식품업계 선두주자다. 신세계푸드 민중식 상무는 "이번 협약은 단순 지역농산물 매입이 아닌 특산물에 대한 제품 개발 노하우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선보인 만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MOU) 체결이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확대에 농가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가공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상품개발,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연계 등 농촌의 부가가치 증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 '사계절이 사는 집' 전남 10대 브랜드쌀 최우수상

영광군은 2020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결과 '사계절이 사는 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천5백만원의 시상금과 '2020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그동안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문도정시설, 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전남 최초 쌀 판매 500억 원을 달성하고 쌀 산업기여도 평가 전국 1위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서영광농협장 강병원, 백수농협장 조형근, 굴비골농협장 김남철, 영광군수, 통합RPC 대표 강선중,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고성신, 영광농협장 정길수를 차지하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학습능력 향상 원예활동

일로초·현경초 60명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호응

무안군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2개소(일로초·현경초), 60명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세대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인성과 생명의 존중, 중요성에 대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원예통합 프로그램이다. 또한

무안군·참여학교·출강강사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진행 중에도 생활수칙을 지켜가며 자연을 벗삼아 실습위주로 진행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지역 농협 의 로컬푸드점에 공들여 기른 쌀



채소를 직접 수확·포장·운반·진열하고 '일로 무농약 초딩상추' 브랜드명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일로농협 마트와의 협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